한 국 축 산 물 위 생 처 리 협 회

협회지 제 56-1호 2003년 3월 17일(월)

제목1: 경기권역협회 모임

- 지난 15일(토)에 경기도일원, 원주(HI-MEAT), 제천(박달재한우)등 11명이 협회사무실에 모여 경기권역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 도축수수료현실화 문제.

① 협회에서 추진하는 도축수수료현실화작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경기도 권역의 도축수수료는 회사별로 주변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조정한다.

참고 : 가락동축협, 부천공판장 - 소/두-(61,000원)
돼지/두-지육(100KG미만-10,500원)
돼지/두-지육(100KG이상-26,000원)

안양협신도매시장 - 소/두-(75,000원)
-돼지/두-(12,000원)

지방도축장 - 소/두-(80,000원~90,000원)
-돼지/두-(12,000원~13,000원)

*위의 가격은 순수도축수수료임.

② 회비납부 문제
- 경기도권역에서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납부하기로 함.

③ 지방세의 카드로 대납 - 삼성카드
조건 - 1, 시, 군 재무계에 부가세를 카드로 납부하겠다고 신고.
2, 삼성카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가세신고서 제출
-FAX도 가능 02-778-1093 삼성-정원조씨.
전화 02-772-2935 HP 011-609-5470

혜택 - 1, 수수료 없음.
2, 5일간 무이자 - 납기일후 5일이내 통장입금시 무이자.

* 원하시는 회사는 위의 전화나 FAX로 직접 연락.

제목2: 정책자금,부채경감,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금리 1.5%수준으로 인하

-농림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당면 현안과제-

농림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산 추곡약정수매가 처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대응 등 3가지 당면 현안과제와 쌀산업 정책, 우유수급 안정화 방안, 새만금 개발, 참여정부 농정추진 방향 등 4가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
진대책을 보고했다. 과제별 주요 추진대책을 알아본다.

◆참여정부 농정 추진방향

부채 부담이 과중한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부채 경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가에 지원된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3~4%에서 1.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구조개선 촉진과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연계한 직불제 확충(농업예산의 20%까지 직불예산 확대), 전통식품산업 육성과 도시민 등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농촌 활성화, 협동조합의 자율적 개혁 유도 등도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또한 농촌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2004년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발췌: 농민신문보도내용중 일부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사)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 구좌 : 농협 군포 남지점 : 장환달 1104 - 02 - 043981

한 국 축 산 물 위 생 처 리 협 회

협회지 제 56-2호 2003년 3월 17일(월)

제목3: 축산물 전자상거래 도입 3년

축산물 유통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다. 전자상거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00년에만 미트마트, 드림엑스팜, 아이델리, 미트프라이스, 미트플러스, 오케이미트 등 10여개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생겨났다. 전자상거래가 유통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워 이들 업체들은 2~3년 안에 전체 축산물 유통물량의 절반을 전자상거래로 흡수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사업을 전개해 왔다.

▲전자상거래 지금의 모습은=축산물 전자상거래 성공의 열쇠는 공급자와 구매자 확보를 통한 '인터넷 시장'의 형성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물량은 전체 7~8조원 축산물 시장 규모의 2~3%에 불과한 1000억 수준(월 100억 미만)에 머물고 있다. 대표격인 아이델리의 작년 매출이 41억2500만원, 미트프라이스 152억원 , 드림엑스팜 700억원대(오프라인 매출 포함)다. 그나마 매출액 대부분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프라인 매출액이다. 10여개가 넘었던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대부분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축산물 시장의 여건을 볼 때 완만한 형태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자들의 인터넷 마인드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유통업자들이 인맥을 활용한 대면거래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 또 축산물의 규격화 및 균일화 미흡, 제품에 대한 신뢰도 부족 등도 고객확보를 저해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브랜드화, 등급 및 원산지 표시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태.

▲전자상거래업체들의 자구노력=축산물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자구책 일환으로 홈페이지 개편, 오프라인 판매장 개설,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발전방안=축산물 전자상거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축산물의 규격화, 표준화,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기 때문.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극히 미미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연구기반 확대와 전문가 육성, 자금 및 정책적 지원, 생산자와 소비자·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강화, 축산물 전자상거래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드림엑스팜 관계자는 "농축산 분야 전자상거래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범업계가 선진 유통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췌: 한국농어민신문

제목4: 돼지고기 재고해소에 숨통

몽고와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돼지고기 재고에 숨통이 트일 전망된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몽고와 1차 수출물량 1천2백30톤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2차 수출물량도 협상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는 오는 15일에서 18일 사이에 1차로 후지 및 등심 3백톤이 선적될 예정이며 연간 3만5천톤 수출이 가능한 필리핀과도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필리핀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해 12월 중국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몽고수출을 위해서는 지난달 18일과 19일 부산경남양돈조합과 제주진양식품에서 각각 20톤씩 샘플 수출을 통해 대량 수출의 교두부를 마련했다.

러시아의 경우는 지난 8일 러시아 검역관이 내한한 바 있으며 10일 대상, 한냉, 농협, 모든, 유성, 은혜 등 6개 가공장에 대해 검역지시가 있었다.

이처럼 필리핀, 몽고, 러시아 등 다각적인 수출경로를 통해 수출부위에 대한 육가공업체들의 재고부담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돼지값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수출업체들과 지속적인 수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축산신문 2003/3/13]